

No. 2013-39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9. 30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미·일 반도체장치기업 합병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현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양적완화 전망에 따른 미·일 금리 차 축소로 강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양적완화 전망에 따른 금리하락으로 하락세

구 분	9.23(월)	9.24(화)	9.25(수)	9.26(목)	9.27(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	98.75	98.65	98.95	98.93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92.85	1,089.24	1,088.45	1,093.14	1,085.53
닛케이평균주가(종가)	-	14,732.61	14,620.53	14,799.12	14,760.07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0.670	0.670	0.690	0.68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8월 무역수지는 9.6천억엔 적자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 수출물량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엔저에 의한 연료수입가격 상승 영향
- * 對한국 무역수지는 1.8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
對한국 투자	(40)	7.7				9.1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
엔화 환율	對미달러 對원화(100엔)	82.9(80.1) (1,413)	89.2 1,197	93.2 1,166	94.8 1,161	97.7 1,148	101.0 1,100	97.4 1,165	99.7 1,13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동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성』 미즈호종합연구소, 9월25일
*출처: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pdf/msif_079.pdf
- 『일본의 수출구조 : 국제비교분석 결과에 의한 일본의 강점』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9월27일
*출처:http://www.murc.jp/thinktank/economy/analysis/research/report_130926

② 주간경제이슈 : 미·일 반도체장치분야 기업간 합병

□ 대형 개발투자 선점이 합병 목적

- 반도체 제조장치에서 일본 최대 업체인 동경일렉트론과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이 내년 후반쯤 합병할 계획이라고 9월 24일 발표
 -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반도체의 고기능화에 대응, 대형 개발투자에서 선점해 나가겠다는 것이 경영통합의 목적
 -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선두기업이 통합하기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기업재편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
- 兩社の 합병으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ASML을 따돌리고 매출액 137억 달러, 시가총액 290억 달러로 선두기업으로 부상
 - 2012년 반도체 제조장치의 세계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양사의 비율이 25.5%로 ASML(12.8%)의 2배나 되어 이번 합병으로 인텔과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인 거대기업이 탄생

□ 3각 합병 방식의 경영통합

- 이번 양사의 경영통합 발표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3각 합병 방식임
 - 양사는 3각 합병 방식으로 통합하는데, 지주회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양사를 사업회사로 하여 산하에 두게 됨
 - 동경일렉트론 1주당 지주회사의 3.25주를, 어플라이드 1주당 지주회사 1주를 할당
 - 동경일렉트론의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1주당 3.25주를 배당받게 됨
 - 지주회사는 미국에도 별도로 인수회사를 설립하여, 그 인수회사와 어플라이드가 합병하여, 어플라이드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1주당 1주 배당받음
 - 지주회사는 동경증권거래소와 미국나스닥시장에 상장되며,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3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
 - 동경일렉트로닉스의 히가시 데쓰로(東哲郎)회장이 통합회사 회장을 맡고, 최고경영책임자는 어플라이드사의 CEO가 맡을 예정인데, 히가시 회장은 “통합으로 개발비 부담이 줄고, 통합 후 초년도에 2.5억달러, 3년 후에는 5억달러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히가시 회장은 3각 합병 이유에 대해 “단순한 제휴로는 기술에 대한 기밀문

제가 있고, 그렇다고 매수하는 것은 투자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 이라고 설명

□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경영통합 효과

- 일본에서는 해외기업과 직접 합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동경일렉트론이 지주회사를 네덜란드에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 후 지주회사 산하에 설립된 인수회사와 동경일렉트론이 합병하는 방식
 - 지주회사는 동경일렉트론 주주가 32%, 어플라이드 주주가 68%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미국과 일본에 합병한 회사가 지주회사 밑에 들어가게 됨
- 거액의 연구개발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재편은 제약 산업에서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IT와 반도체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번 재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규모면에서 동경일렉트론을 능가하는 어플라이드가 동경일렉트론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兩社가 대등한 자격으로 통합을 선택했다는 점임
 - 이번 통합으로 동경일렉트론이 어플라이드의 자회사가 되는 방식이 아니고, 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을 선택한 것은 투자금 회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동경일렉트론 회장과 어플라이드 CEO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무난한 경영을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개발비 분담을 위한 업계재편이 잇따를 가능성

- IT 단말기 분야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몸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웨어러블컴퓨터 상품화도 추진하고 있음
 - 탑재되는 반도체도 소형화와 전력 절약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조장치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나 개발까지 수 백억엔 단위의 투자가 필요
- 兩社는 경영통합으로 개발비를 분담, 차세대 기술인 450밀리 웨이퍼를 위한 제조장치의 실용화와 메모리의 대용량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
 - 이에 따라 IT단말기의 소형화와 고기능화가 조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반도체 업계에서는 작년에 파산한 엘피다메모리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산하에 들어갔고, 미국 인텔은 작년 ASML에 출자하는 등, 향후 개발비 부담 억제를 겨냥한 업체들 간의 재편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③ 경제정책동향

□ 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포함시킬 방침

- 일본정부가 성장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담긴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음
- 2013년부터 5년간을 성장전략에 따라 기업재편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긴급 구조개혁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재생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10월 15일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 동 법안에는 의료 등 법적 규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신규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기업들이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한 영역) 해소제도」도 포함시킬 방침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연대하여 지역에서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가 자금지원 등 협력
 - 자치체가 창업지원 당사자와 다른 자치단체와도 연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육성
- 기업단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업특구제도를 신설하여 신규 사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도 창설
 - 벤처기업에 대한 국립대학법인의 출자도 특례로 인정할 방침인데, 미국의 1/20에 그치고 있는 벤처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의 신진대사를 높이려는 의도

□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對아프리카 투자

- 일본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인프라정비 지원에 착수
 - 케냐의 항구도시 몬바사에서 경제특구도시정비계획을 입안한데 이어 탄자니아와 서아프리카에서도 교통과 도시기반계획 입안을 제안
- 아프리카에서 교통망과 전력 등 인프라 정비가 경제성장의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원을 통해 인프라수요를 환기시키고, 일본기업들이 투자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

- 2014년부터 2년간 케냐 최초의 경제특구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후보지는 인도양에 접한 몬바사 남쪽의 임해지구
 - 전력, 통신, 도로, 물 등 인프라와 환경을 감안한 도시를 개발하는 한편, 인근 동아프리카시장도 겨냥하여 물류 및 제조업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진출을 목표
 - 몬바사에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0억엔 이상의 엔 차관으로 항만확장사업을 추진 중인데, 향후에도 도로정비 등에 엔 차관을 공여할 계획이며, 케냐 내륙부와 우간다 등 주변국을 포함한 경제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전략
 - 서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전력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데,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계획입안을 종합적으로 지원, 발전효율이 좋은 일본기업의 화력발전 설비도입도 지원할 방침
- 이미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인프라 계획입안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일본정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를 진출대상지역으로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지역의 투자환경 정비를 지원할 계획

4 일본기업동향

□ 릿실과 도레이, 구미의 세계적인 업체 인수

- 일본 최대의 주택설비기기 제조업체인 릿실(LIXIL)그룹이 독일 그로헤를 약 4,000억 엔에 매수하기로 하고 최종조정에 들어감
 - 일본정책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주주인 미국 투자펀드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부채도 인수
 - 릿실은 8월에도 미국의 최대 도자기 업체를 매수하는 등, 대형 M&A에 의해 해외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릿실은 정책투자은행과 매수를 위해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SPC가 주주인 TPG캐피털과 크레디스위스그룹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
 - 주요 주주는 주식공개(IPO) 가능성도 남아있어 최종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액주주들과의 교섭을 병행하면서 주식 전량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로헤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2,000억엔 정도의 부채를 포함한 총 매수가액은 약 4,000억엔
 - 그로헤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SPC는 릿실과 정책투자은행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출자하고, 양사가 동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방침
 - 릿실과 정책투자은행의 출자분 이외의 매수자금은 대형은행의 융자로 충당
- 그로헤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욕실과 주방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유럽 최대 기업으로, 릿실은 이번 매수로 유럽의 주택설비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
- 릿실이 해외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일본의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함
 - 2013년 일본의 주택착공 건수는 소비세 증세 이전의 가수요로 5년 만에 90만 호대로 증가할 것이나 2014년 이후는 다시 감소될 전망
 - 저출산 고령화 요인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축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
- 릿실은 舊생활주택그룹의 토스템과 INAX, 신닛케이(新日輕)등이 통합하여

2011년 4월 탄생된 회사로서 2011년 8월 미국 GE출신 후지모리 요시아키(藤森義明)를 사장으로 영입한 이후 M&A를 활발하게 추진

- 한편, 탄소섬유분야에서 세계 1위인 도레이는 세계 3위인 미국 졸테크를 600억~700억엔에 매수
 - 도레이는 高性能제품 분야에 주력해오고 있는데, 저가품분야에서는 세계 톱메이커인 졸테크를 산하에 둠으로써 새로운 탄소섬유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할 계획
 - 졸테크의 매수에 따라 도레이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에서 30%로 상승,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 특히 매수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생산비용이 저하되는 경우 탄소섬유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도레이 역시 미국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졸테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금년 중으로 매수를 완료할 전망
- 졸테크가 생산하는 탄소섬유의 단가는 도레이 등이 생산하는 고품능품의 60% 정도로 전자재와 자동차부품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도레이는 매수를 계기로 저가 탄소섬유도 생산할 계획
- 탄소섬유의 세계 수요는 2012년까지 14만톤으로 현재의 4배로 증가할 전망
 - 도레이는 지금까지 대형 M&A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일본 국내의 경쟁기업 외에도 중국과 대만기업들이 경쟁상대로 급속하게 대두함에 따라, 성장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투자를 실시

5 한국관련워치

□ 도레이, 한국 웅진케미컬 매수

- 도레이가 성장유망제품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수처리막 생산업체인 웅진케미컬을 400억엔에 매수한다고 발표
 - 도레이는 한국의 대형 수처리막제조 업체인 웅진케미컬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의 다우케미컬을 추격
 - 도레이 한국법인이 웅진케미컬 주식 56%를 취득하는 우선교섭권을 입찰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한국 주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이르면 금년 내에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
- 도레이는 해수담수화 및 배수처리 등 대형설비용 성능제품에 강한 한편, 웅진케미컬은 가정용 정수기가 주력
 - 웅진케미컬은 물을 여과하는 역침투막과 고기능섬유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역침투막은 해수담수화설비나 가정용정수기 등에 사용됨
- 도레이는 한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 웅진케미컬의 공장도 가까워 높은 시너지효과가 예상
- 도레이는 현재 중기경영계획에서 의류생산에도 착수하는 등 섬유사업의 개혁을 추진 중
 - 도레이는 2,000억엔의 M&A한도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대형매수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 한국 IT기업, 인터넷 영어회화서비스로 일본시장에 진출

- 국내에서 기업용 영어회화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IT서비스업체인 다존이 일본시장에 진출한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10월부터 일본에서 기업용 인터넷을 통한 영어회화교육서비스를 개시
 - 비즈니스영어에 특화한 개별지도로 요금은 25분당 900엔으로 저렴하게 설정
- 다존은 일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인터넷관련 기업인 코조우(小僧)com과 합작법인 글로벌 인스터비스를 설립
 - 다존이 80%, 코조우com 및 경영진이 20%를 출자
- 다존은 마닐라의 교원면허 또는 TESOL자격증을 가진 강사 200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약 30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
 - 일본에서도 필리핀 교사가 담당할 예정